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25>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

23장에서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學語之輩 說時似悟 對境還迷 所謂 言行 相違者也

말만 배운 사람들은 말할 때는 깨친 듯이 보이지만 실제 경계를 만나면 어쩔 줄을 몰라 그만 아득해져 버리니, 말하자면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 있다.

이것은 서산 스님이 22장에서 '충명한 사람이라도 지어놓은 입을 뿌리칠 수는 없고, 알음알이 쓸모없는 지혜로는 헛바퀴처럼 이어지는 고통을 면치 못하니, 모름지기 한 생각을 살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지어다' 라고 말한 뜻을 매듭지어 한 말이다.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 그 말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선가귀감>을 번역한 <깨달음의 거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여 자세히 설명한다. "종교를 지혜와 자비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일상생활에까지 미쳐야 한다. 종교는 메마른 이론보다도 실제의 행동을 중요시한다. 이론은 행을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종교인의 위선도 바로 이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데서 비롯한다. 절대적인 세계를 체험했다면, 그것이 보편적인 일상생활에까지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그 체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24장에서는 화두를 참구하는 한 생각이 특 터져야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다고 한다.

若欲敵生死 須得這一念子 爆地一破 方了得生死

증생의 생사를 해결하려면 화두를 챙기

는 한 생각이 특 터져야 비로소 생사의 실체를 알 것이다.

서산 스님은 이 대목을 풀이하여 "화두를 챙기는 한 생각이 특 터진다는 것은 '칠통 같이 어두운 무명을 타파하는 소리'다. 이 어두운 무명을 타파한 뒤에서야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오직 이 일만이 있었을 뿐이다[爆地 打破 漆桶 打破漆桶然後 生死可敵也 諸佛因

## 무명 타파할때 생사문제 해결 깨친 후 선지식에 점검 받아야

地法行者 只此而已"라고 말한다.

화두를 챙기는 한 생각이 특 터졌다고 하는 '타파칠통(打破漆桶)'은 선림(禪林)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서 철저하게 깨달은 상태를 말한다. 칠통은 새까만 옷을 담아 두는 통을 말하는데, 이 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통 밖이나 안이 모두 새까매져 그 통 자체의 처음 색깔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아주 먼 과거부터 쌓여온 우리의 무명 번뇌가 '본래 갖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막장구름처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이것을 까만 칠통에 비유한다. 우리들이 어느 날 번뇌에서 해탈하면 모든 망상이 사라지고 큰 깨달음이 드러날 때, 이때를 칠통같은 무명을 타파했다고 하여 '타파칠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종에선 '깨달음 얻는 것'을 종종 이 말로 표현한다.

<백암록> 97칙에서도 "아무리 살피고 살펴봐도 마음 밑 곳이 없으니 어느 곳을 향하여 밝은 구슬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칠통을 타파해야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깨달음을 얻고자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씨앗을 길러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인지(因地)'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法)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행(行)이니, 부처님 세상으로 향하는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인지법행'이다. 화두 참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두를 깨치는 일만'이 그들의 '인지법행'이 될 것이다.

<선가귀감> 25장에서는 한 생각을 깨친 뒤에는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 반드시 점검 받을 것을 당부한다.

然一念子 爆地一破然後 須訪明師 決擇正眼

생사의 실체를 알았더라도 한 생각을 깨친 뒤에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 바르게 깨졌는지를 점검받아야만 한다.

서산 스님은 이 대목을 풀이하여 "이 공부는 정말 쉽지가 않으니 뭘 알아도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안나 한다. '도'란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니, 조금 공부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깨달은 뒤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경계라도 도리어 이것이 공부에 독약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눈 밝은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하늘에서 겨자씨를 던져 바늘 끝에 올려놓는 것이 선지식을 만나는 일보다 쉽고도 하니, 인도에서 96층의 옥사(玉師外道)들이 모두 생사 해탈을 구하고도 하였지만 사탄 스승을 만남으로써 생사에 침몰한 것을 보면 알 것이다.

■원승 스님(승광사 인월암)  
cafe.buddhania.com/community/wonsun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산화(散華)

6월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현충일에 헌화와 분향을 하는 참배객들로 국립묘지가 간만에 활기가 도는 달입니다. 또 이 즈음이면, 언론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이들의 넋을 기린다'며 추모의 기사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화(散華·散花)'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사실 산화는 불교에서 치르는 의식으로, 부처님 앞에 꽃을 뿌려 공양하는 것입니다. 여러 경전에 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 스님이 지은 <대당서역기>에 다음 구절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한 날이면 수십만명의 대중이 보리수 아래 모여 꽃과 향을 뿌리고 등불을 밝히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공양한다"고 말입니다. 국어사전에서도 불교의식이란 설명과 함께 "꽃다운 목숨을 전장(戰場) 등에서 잃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지요.

불교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호국영령들의 모습을 산화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큼니다.

김철우 기자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0)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46강 혜능의 또 다른 사상(四相) 해설

<금강경> 6장의 후반부, 혜능의 해설을 이어 듣는다.

### 4절

須菩提, 如來悉知悉見, 是諸衆生, 得如是無量福德, 何以故, 是諸衆生, 無復我人相, 衆生相, 壽者相, 無法相, 亦無非法相.

"수보리야, 여래는 다 보고 아신다. 이 중생들이 여래의 무량한 복덕을 얻을 것인 줄을... 어찌서나. 이들 중생들은 더 이상 아상, 인상, 중생상, 그리고 수자상 등, 어떤 형태의 자의식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환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없다는 자포자기적 착각도 없다."

### (혜능의 해설)

六祖: 若有人, 如於滅後, 發般若波羅蜜心, 行般若波羅蜜行, 修習解悟, 得佛深意者, 諸佛無不知之. 若有人聞上乘法, 一心受持, 即能行般若波羅蜜無相無著之行, 了無我人衆生壽者四相, 無我者, 無受想行識也. 無人者, 了四大不實, 終歸地水火風也. 無衆生者, 無生滅心也. 無壽者, 我身本無, 寧有壽者. 四相既無, 即法眼明徹, 不著有無, 遠離二邊, 自心如來, 自悟自覺, 永離塵勞妄念, 自然得福無邊. 無法相者, 離名絕相, 不拘文字也.

亦無非法相者, 不得言無般若波羅蜜法. 若言無般若波羅蜜法, 即是謬法.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1)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라, 2) 그것은 사상(四相)을 극복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3) 자아와 더불어 법상을 지워라. 아울러 비법상을 경계하라. 진리가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1)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라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 여래가 떠나신 후에, 반야바라밀을 밟상하고, 반야바라밀의 행동을 행하며, 수습해오(脩習解悟), 이 의지와 실천을 두고, 익히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치며, 이윽고 붓다의 깊은 뜻을 얻은 자, 그들을 여러 부처들은 잘 알고 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상승법(上乘法)의 이치를 듣고 입심으로 수지한 즉, 반야바라밀의 무상(無相) 무착(無著)의 행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소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상승법(上乘法)이란 혜능의 문교를 가리킨다. 여기 뒤야야 할 것도 없고, 그만 둘 것도 없다. 이루어야 할 해탈도 없으며, 가야 할 서방 극락도 없다. 아무의 노래를 빌리면, 원동태허 무흠무어(圓同太虛 無欠無

翰), 세상은 '이미' 완전하다. 그 안에서 나는 '하루 종일 바쁘네, 무슨 일인데 마음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終日忙忙, 何事無妨)'. 이 완벽한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 혜능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무착(無著), 즉 내 마음이 타자에 의해 점령되지 않는 것이고, 둘은 무상(無相), 즉 세상이 나로 인해 구획되거나 시비되지 않는 것이다.

2) 사상을 극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무아상(無我相)이란 수상행식(受想行)

은 내게, 실은 것은 당신이"하는 계몽과 약삭빠름이었고, 4) 수자상은 모든 사태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하는 인간의 오랜 습성이었다.

B.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수행인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사상이 있다! 거기 1) 아상은 "나는 보살, 너는 중생"이라는 한심한 구분이고, 2) 인상은 "내가 곧 법"이라면서 파계를 거러까지 않는 것이었으며, 3) 중생상은 다음 생애는 좋은 곳에 좋은 탈을 쓰고 태어나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

자의 감옥(文字獄)을 벗어나 진리를 자유롭게 약삭빠름이었고, 4) 수자상은 모든 사태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하는 인간의 오랜 습성이었다. B.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수행인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사상이 있다! 거기 1) 아상은 "나는 보살, 너는 중생"이라는 한심한 구분이고, 2) 인상은 "내가 곧 법"이라면서 파계를 거러까지 않는 것이었으며, 3) 중생상은 다음 생애는 좋은 곳에 좋은 탈을 쓰고 태어나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

이들 '마음'의 여러 상태, 혹은 국면들은 '몸'을 나타내는 색(色 body)과 함께 오온(五蘊)의 멤버들이다.

오온은 불교가 무아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장안한 개념이다. 오온이란 문자 그대로 다섯 무더기(five heaps)라는 뜻이다. 쌓아놓은 벧단 혹은 장작단들에는 그들 사이를 통할하는 중심 혹은 자아가 없다. 불교는 이 용어를 통해 인간의 의식과 의지, 그리고 감정의 흐름에는 '주인공'이 없다는 것, 전문용어로 자성(自性)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했다. 물론, 상식에는 설득하기가 어렵다.

초기 아비달마는 자기 내부의 이런 다양한 마음의 변태들을 주시하는 '명상'을 개발하고, 그 흐름들을 분석하고 갈래짓는 것을 '지혜'라 불렀다. 아비달마에게 있어 '지혜'는 대승이나 선의 지혜와는 실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 차이의 흔적을 지금 혜능의 말에서 읽을 수 있다.

소승 아비달마(Abhidharma)는 자아의 통합적 중심은 없지만(無我), '오온은 실재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인간에 물리지 않은 '객관세계의 차원'은 실재법(諸法)은 틀림없이 실재한다는 것이었다. 아비달마를 설립해주부(一切有部)로 번역하는 것도 그때부터이다. 설립해주부란 '일체(一切)의 고차원적 사물이 존재한다(有)고 주장하는(說) 학파(部)'라는 뜻이다.

대승은 이 고차원적 사물, 즉 법(法)의 실재성을 부인하면서 출발했다. <금강경>은 그 주장의 가장 강력한 설파자인 중관(中觀)의 핵심경전임을 기억하자. 혜능은 그 발전의 연장선에서 절대무의 상승법을 설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무아란 수상행식조차 없음을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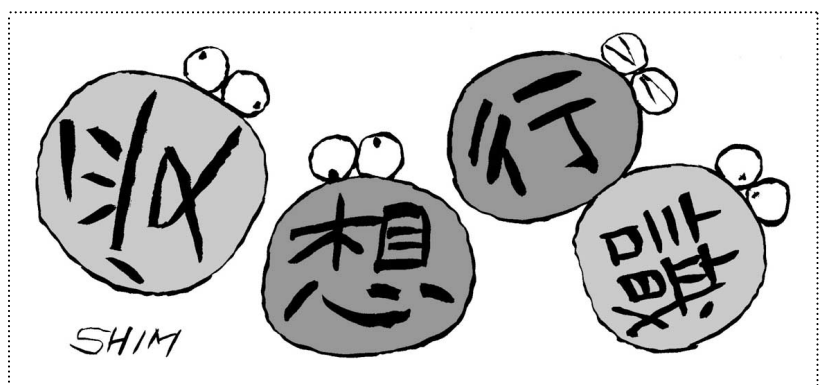
cafe.buddhania.com/community/plan\_14

## 행복동 사람들

진정한 보시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nia.com/community/happydong

## '수상행식' 조차 없는데 '무아' 다



열망이었고, 4) 수자상은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승의 개뽕밭에서 오래도록 뽕고 싶은 생명연장의 회구를 가리켰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혜능은 또 다른 사상을 설파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질색한다. 근거없이 떠들거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는 이렇게 그렇게 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거와 일관성이 진리의 토대는 아니다! 혜능은 일찍이 이 문

지 않는다. '받아들이고, 상상한다. 간다, 인식한다'니 무슨 소린고, 서로 격이 다르고 연관이 모호한 문자의 조합들은 아무리 뒤집고 찢고 파고 해도 도무지 곱짜를 잡기 어렵다.

불교의 심리학자 연사들은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를 영어식으로 번역한 것들이 오히려 이해가 쉽고 빠르다. 이 말들은 영어로는 각 감정(feeling), 지각(perception), 의지의 토근은 아니다! 혜능은 일찍이 이 문